

성경의 맥잡기 – Chapter 9. 사복음서

D.P.Joshep 2010-06-07 22:55:30

조회 23 스크랩 0

신약성서의 형성 및 배경을 살펴보면, 말라기 이후로 400년간의 암흑기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암흑기 동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의 등장으로 신약은 시작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치던 세례 요한으로 인하여 곧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였고 그 분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요한의 인기는 정말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을 따르는 자들이 생기게 되었고 곧 세례요한의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침례 요한입니다. 그는 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는데, 그의 메시지는 상당히 직접적이면서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헬라 사상에 찌들어가고 있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그 분을 따르는 무리가 생겼습니다. 이 공동체가 갈릴리 공동체입니다. 훗날, 70명의 제자들이 파송되기도 하지만, 일단은 예수님과 함께 12명의 제자들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공동체가 활동한 시기는 AD 30년이 지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록들이 구전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런 자료들을 'Q자료'라고 부릅니다. 독일어로 'Quelle'라 하여서 복음서에 원천이 되는 자료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이 Q자료를 통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쓰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중심적인 리더십으로서 활동하였습니다. 이 교회는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복음을 받아들여지게 될 만큼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들을 보면, 예루살렘 토박이 출신인 히브리파 사람들과 '디아스포라'로 인해서 타 지역에 거주하였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유대인들인 헬라파 사람들 그리고 출신이 헬라 출신이지만 복음을 영접한 타민족 무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AD 30년쯤에 예루살렘 교회를 형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려움을 주셔서 타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만드십니다. 그리하여서 히브리파 사람들은 팔레스틴 교회를 세우게 되고 헬라파의 일곱집사를 포함한 사람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중심적인 리더 역할을 하게 되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바울은 '에베소'라는 도시를 가서 여러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헬라파 사람들은 타 지역에서 살아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비해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개방적인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팔레스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가장 먼저 마가복음을 쓰게 되고 그 마가복음과 Q자료를 바탕으로 마태복음은 AD 75년에, 누가복음은 AD 60년 중반에 쓰여지게 됩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가 형성되고 활동하는 시절에는 사도행전 및 바울의 서신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 도시에서 바울이 사역할 쯤에 두 개의 학파가 나뉘어지게 되는데, 한 학파는 바울을 따르는 바울학파이고, 다른 학파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을 따르는 요한학파입니다. 그래서 바울학파를 통하여서 바울의 서신들이 전해졌고 요한학파를 통하여서 요한복음을 포함한 요한의 서신들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4개의 복음서를 정리해 보면, 일단 왜 굳이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4개나 되는 복음서를 통해서 전해야 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4개의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들은 모두 같은 예수님의 사역들을 알려주는 것이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그에 대한 해석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학생이나 선생이 보는 관점이나 혹은 부유한자나 가난한자가 바라보는 관점과 생각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각각의 복음서에는 서로 다른 살아온 환경이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저자들이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복음서를 쓴 목적 혹은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고 쓴 것인지가 서로 다릅니다.

먼저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의 저자는 세리였으며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인 마태입니다. 그는 세리 출신이었기에 숫자 계산이 빠른 자였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는 똑똑하며 정리정돈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이야기 전개가 잘 정리정돈이 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산수훈이나 종말 설교 등과 같이 예수님의 사건들을 모아놓았습니다. 마태복음에서 표현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왕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장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축보입니다. 유대인들은 축보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1장에서 예수님의 축보를 말해줌으로써 예수님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의 자손임을 밝힘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반감이 없어지게 하였습니다. 마태복음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 복음서는 예수님을 왕이며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자로서 표현하였기에 130회에나 이르는 많은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임마누엘을 강조하였고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종말론이나 심판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적 보편성임을 강조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상명령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마가복음을 쓴 저자는 '마가'입니다. 성만찬으로 유명한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이기도 하며, 사도행전을 보면 바나바의 조카로서 알려지게 됩니다. 또한, 그는 황금콤비였던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싸우게 되는 계기를 만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바울이 더욱 변화된 후에는 마가를 사랑하며 그를 챙기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4대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로써 두 개의 공관복음의 기본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공관복음이란 공통된 관점으로 예수님의 생애나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서 쓴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 칭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이 공관복음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내용이 거의 90% 가까이가 비슷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왕으로써 표현하였다면,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종으로써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섬기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으로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면, 마가복음은 로마인들 혹은 로마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동안 '곧'이나 '즉시'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면서 진행이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수난 주간에 많은 내용을 할애합니다. 마가복음의 40%의 내용을 이곳에 할애할 정도로 많은 부분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달리다굼'이나 '엘리엘리 라마사박다니'라는 아람어를 사용하는 것을 유일하게 서술해 놓은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헬라인이며 직업은 의사이며 역사가인 '누가'입니다. 그의 직업을 보면서도 추측할 수 있지만, 그는 상당한 엘리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쓸 때에 예수님의 행동이나 말씀들을 아주 구체적이며 정확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성화를 그리기 원하는 작가들도 누가복음을 참고하여서 성화를 그렸다고 할 정도로 누가복음의 내용들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꼼꼼한 저자이기에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도 여러 메시지들을 더 많이 압축하여서 적어놓았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다른 복음서의 경우에 하나의 이야기를 한 장에 적어놓았다면, 누가복음에서는 두 세 개의 내용을 압축하여 한 장에 옮겨 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내용들이 누가복음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는 헬라인들을 위해서 이 복음서를 써놓았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데오빌로를 위해서 썼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이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데오빌로가 이 글을 읽게 하기 위해서 써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의 같은 책이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그냥 사도행전을 누가복음 시즌 2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누가는 신약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 사람을 위해서 면밀하게 조사하고 시간 순서대로 자세하게 서술하였습니다. 바울과 같이 다닌 누가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2년 동안 누가복음을 위해서 사전조사를 하였을 것입니다. 누가는 한 사람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는 따스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받고 읽고자 하는 데오빌로는 성경이나 예수님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열의가 있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표현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인성을 가진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초대 교회에서의 많은 이단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신성화시키거나 혹은 인간적인 부분으로만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누가복음에서의 예수님은 인간적인 고뇌를 하시는 분이셨고, 아파하셨고, 눈물에 대한 고백들이 많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면, 십자가에 대한 고뇌를 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한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많이 기도를 하셨고 또한 기도에 한 언급을 많이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예수님부터 역으로 올라가면서 따져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담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이처럼 누가는 치밀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또 하나의 특징은 사도행전도 마찬가지로이지만 성령과 말씀에 대한 강조가 많다. 그리하여 성령의 능력에 의한 말씀의 파워를 신나게 표현합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사도행전 12장과 13장에서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서 내보내주

십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에 그만큼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말씀의 능력과 파위를 많이 보여주는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의 의사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가난한자나 소외된 자 그리고 여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버림받은 자들의 친구로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을 쓴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수신인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리기 위해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는 것과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쓰는 목적이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오랫동안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섬기고 나서 나이가 90세에 다다라서 쓴 글입니다. 그렇기에 공관복음서에 없는 내용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마리아를 섬기면서 그녀에게 들은 많은 이야기들을 이곳에 적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장을 읽어보면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모두 적기에는 내용이 너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자신이 목적이 있기에 적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약간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위에서도 언급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알려주기 위해서 서술한 것임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첫 장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말씀 그리고 예수님은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주제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에게는 주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2장부터가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첫 이적 사건인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보이시기도 하며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니고데모에게 진리를 가르쳐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에 대한 정의를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 지를 비유로서 직접적으로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단지 비유로서만 설명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맞는 기적을 보이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6장에서는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표현을 하셨는데, 이에 맞는 기적으로 4복음서에 유일하게 다 적혀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8장에서는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는데 바로 다음 장인 9장에서 맹인을 치유하십니다. 이외에도 11장에서 나사로를 부활시키시기 전에 자신을 부활이라 생명이라 말씀하셨고 그 이외에 자신을 양의 문, 선한 목자, 길, 진리, 생명 그리고 포도나무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해주셨습니다. 14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붙잡히기 전의 약 4시간에 대한 사건들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8장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과정을 말씀하고 계시고 20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끝이 나아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공관복음을 보면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은 나약하고 배신자의 모습으로 나오고 끝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처음에 보이는 베드로의 모습은 성령충만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저렇게 변했을 까'가 궁금해 할 수 있는 데, 그것에 대한 부분을 요한복음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심으로서 제자들은 다시 일어나 주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1장은 사도행전을 위한 외전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 장을 통하여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장이며 힘이 나게 하는 장이기도 합니다.